



내달 개봉작 ‘마스터’ 이병헌·강동원·김우빈

연기 마스터들이 뭉쳤다

이병헌 “밀도 끝도 없는 악역은 처음”
강동원 “독심있는 형사역할 도전”
김우빈 “사기꾼인지 형사인지...”

이병헌과 강동원, 김우빈 등 충무로의 각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영화 ‘마스터’에서 한데 뭉쳤다. 세 배우는 14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마스터’ 제작보고회에서 각자 숨겨둔 입담을 뽐내며 촬영 후일담을 들려줬다. 다음달 개봉을 앞둔 ‘마스터’는 건국 이래 최대의 조(조) 단위 사기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쫓는 지능범죄 수사대와 최대의 사기범, 그리고 그의 브레인까지 각 분야 전문가(마스터)들이 벌이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그린 액션영화다. 이병헌은 이 작품에서 연변이 뛰어난 최대의 사기꾼 진 회장으로 등장해 팔색조 연기를 보여준다. 전작 ‘내부자들’의 안상규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다. 이병헌은 “상대방에 따라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다른 말투를 사용하는 인물”이라며 “진 회장처럼 뻗속까지 악역, 밀도 끝도 없는 악역을 맡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진 회장에게 감정 이입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결국 이 정도로 나쁜 사람들은 생각의 구조 자체가 일반인과 다르고, 자기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결론을 낸 뒤에야 연기에 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지만, 이

작품도 현실을 반영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라며 “관객들에게 위로가 되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터’ 앞에는 ‘건국 이래 최대 게이트’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병헌은 진 회장 역을 위해 백발의 노신사로 분하며 외모에도 큰 변화를 줬다. 필리핀 역양의 영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위해 별도로 영어 대사를 녹음해 연습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전작 ‘검사외전’에서 꽃미남 사기범으로 등장했던 강동원은 이번에는 사기범을 쫓는 형사로 180도 변신했다. 강동원은 “정의실현을 위해 독심 있게 밀어붙이는 형사 역할”이라며 “형사 역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캐릭터여서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었다. 이전 작품들보다 남성성을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강동원은 필리핀에서 자동차 추격신을 찍다가 유리 파편에 목을 찔리는 등 크게 다치기도 했다. 강동원은 “당시 얼굴에도 유리파편이 박혀 피가 많이 났다”면서 “감독님이 제 모습을 보고 절망에서 가까운 표정을 짓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떠올렸다.

강동원은 이어 “필리핀 촬영 기간에 사를 찍고 나면 하루는 아팠다”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찬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 탈진과 탈수가 반복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김우빈은 사기범과 경찰 사이를 오가는 타고난 브레인 박장군으로 등장한다. 김우빈은 “지능범죄 수사대와 사기범 사이에서 갈등하는 역할”이라며 “생각과 행동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인물이라서 이를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작 ‘감시자들’로 550만명을 동원하며 흥행 감독이 된 조의석 감독은 “‘감시자들’은 원작을 리메이크한 영화지만, ‘마스터’는 오리지널 각본을 써서 새로운 느낌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며 “‘감시자들’보다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 영화는 서울 도심과 필리핀 마닐라 빈민가를 오가며 촬영됐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한 달에 걸친 촬영 기간에 평균 200여 명의 현지 스태프가 참여했으며 현지 경찰 차량 18대, 경찰관 140명이 동원됐다. 필리핀 도심에서 액션 장면을 촬영한 전례는 할리우드 영화 ‘본 레거시’ 이후 ‘마스터’가 처음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종석 주연 ... 내년 방영

‘너목들’ 작가와 세번째 만남

배우 이종석(사진)이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가제)의 주인공을 맡는다고 이 드라마의 제작사 iHQ가 14일 밝혔다. 내년 방송 예정인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누군가에 탁월 불행한 사건사고를 꿈으로 미리 볼 수 있는 여자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사의 이야기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피노키오’를 히트시킨 박해련 작가의 신작으로, 이종석은 이 두 작품에 이어 세번째로 박 작가와 손을 잡게 됐다. 드라마의 편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작사는 “그동안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에서 시청자들을 만족시켜온 박해련 작가와 대세 배우 이종석의 조합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사미자, 연예인 첫 ‘우리말 달인’ 등극

여든을 바라보는 배우 사미자가 ‘우리말 달인’에 등극했다. 사미자(76)는 KBS 1TV 퀴즈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가 배출한 연예인 최초 우리말 명예 달인에 등극했다고 KBS가 14일 소개했다. 사미자는 성우 안지환(47), 방송인 조영구(49), 박슬기(30) 등 다른 도전자들과의 우리말 퀴즈 대결에서 승리해 상금 1000만원을 거머쥐었다. 사미자는 녹화 당시 “한 주라도 ‘우리말 겨루기’ 방송을 놓치면 그날 저녁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시청했다”고 전했다. 녹화본은 이날 오후 7시35분 ‘우리말 겨루기’ 641회를 통해 방영됐다. 사미자는 1963년 동아방송 1기 성우로 연예계에 데뷔해 다수 드라마와 영



화, 연극에 출연했다. 그는 TV 생활정보 프로그램 패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봄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55 닥터 365(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견 유레카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00 1대 100 (재)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다큐 공감 5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자교실	00 불타는 청춘 (재)
3	00 특집다큐 <대학, 교양에 길을 묻다>(재)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동차부책상 위키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 똑! 키즈스쿨 55 파워배틀 외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 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백세시대 2부작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특별기획 <남만닥터 김사부>	00 월화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살림하는 남자들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30 경제매거진 M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생존의 바다 인도네시아 상어잠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동물당 유치원1~3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윈스 09:30 이입!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무정감자와 총각감자>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실악의 하늘정원, 공룡농선> 13:40 출거온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레빗 15:20 아웅명명 귀여워(재) 15:35 요술 상자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동물당 유치원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멕시코 전통의 향기를 찾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올라!올라, 포르투갈 - 풍요로운 해안의 나라> 21:30 한국기행 <은비령로드 - 단풍 지기전에 설악> 21:50 EBS 다크프라이드 <교육대기획 시험 - 나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크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11월 15일(음 10월 16일 辛丑)			
子	48년생 독창성을 상실한다면 무의미해진다. 60년생 어설픈 행하러거든 아니함만 못 하느니라. 72년생 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84년생 대체로 해소되지만 부분적인 결핍은 여전해졌다. 행운의 숫자 : 55, 62	午	42년생 여태까지 전혀 잡혀 보지 못했던 별 희한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주 잡혀만 능숙해질 수밖에 없다. 66년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점이 될 수 있다. 78년생 뿌리 대로 거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81
丑	49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전이 될 것이다. 61년생 작은 것에 기쁨이 있는 법이니 소박함에 정성을 다하라. 73년생 전대미문의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85년생 구역을 다 맞추다 보면 특별함을 도모하기 힘들다. 행운의 숫자 : 91, 04	未	43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담을 수 있다. 55년생 복잡다단한 관제가 계속 될 것이니 종합적인 고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67년생 같은 구름이 겹치고 있으니 곧 해가 떠오르리라. 79년생 행태를 잘 리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1, 66
寅	50년생 잘 살펴보아야 하는 국면이다. 62년생 추구에 왔던 바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74년생 고단하더라도 꼭 잡고 한결같이 진행해 나가다 보면 행운이 따른다. 86년생 정리되어야 확실한 선택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84, 98	申	44년생 멀리서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비추고 있으니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라. 56년생 부분이 아닌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68년생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됨을 알고 있자. 80년생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행운의 숫자 : 61, 97
卯	51년생 행운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확실히 잡아라. 63년생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75년생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되짚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87년생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에 충실 하라. 행운의 숫자 : 17, 46	酉	45년생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니 패념지 말라. 57년생 시세가 흥흥하니 상당한 애호가 따를 수 있다. 69년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될 것이니라. 81년생 주변의 생활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행운의 숫자 : 01, 75
辰	40년생 누적되어 온 것을 정리하게 된다. 52년생 자발적이려면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리라. 64년생 완성도를 높여야만 할 때다. 76년생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혼란에 빠지게 된다. 88년생 이동하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행운의 숫자 : 69, 65	戌	46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디딤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 각오하라. 70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포용적 국량이 필요하다. 82년생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보이니 강우에 대비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2, 54
巳	41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53년생 뜻 밖의 것이 나타나지만 대응할 수는 있다. 65년생 현실적이어야 한다. 77년생 양상을 살펴본 후에 판단하라. 89년생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허하다. 행운의 숫자 : 83, 96	亥	47년생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59년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1년생 깊이가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타개할 수 있다. 83년생 눈부신 햇살처럼 행운이 비취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5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